

고용보장! 일터 괴롭힘 금지! 정년연장! 간부 교육시간 확보!
업무시간 외 근무지시 금지! 회사 내 식당 GMO식품 사용 제한! 기본급 123,526원 인상!



지부교섭 속보

05호

2019.05.24(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질의응답은 끝났다!

다음주 교섭에서는 사측 제시안 나와야 한다!

3주 동안 질의응답 진행

5월 23일(목) 14시 한국JCC에서 5차 지부교섭이 진행됐다. 5차 교섭에서도 사측은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3주에 걸쳐 지부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노측 교섭위원들은 이번 주까지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뤄진 만큼, 다음 교섭에서는 회사 측의 제시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JCC 대표이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회사에게 복지를 요구하기보다 국가가 복지문제를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방향에 동의한다면서 회사 규모가 크든 작든 노동자들이 같은 임금을 받고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제도약을 위해 노사관계가 안정화되려면 사용자가 양보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GMO(유전자조작식품) 사용제한은 상식적 요구!

사측은 식당개선 요구안에 대해 질문했다. 'GMO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며, GMO식품 사용을 제한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는 빈약하다. 콩, 옥수수 등 6개 작물을 대상으로 GMO성분이 3% 이상이면 표시하도록 한다.

그런데 그마저도 제대로 안되는 실정이다. 식품을 소비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품이 GMO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적어도 회사에서 수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재료는 이 표시제를 정확히 준수하는 식품을 사용하라는 요구이다.

GMO는 유전자를 조작한 농산물로 아직도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사전에 경각심을 깨우고, 규제하자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다음 교섭에서는 제시안 제출해라!

이제 3주만에 걸친 질의응답이 끝났다. 사측은 3주 동안 질의응답을 하면서 질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까지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노측 교섭위원들은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고, 충분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다고 판단한다. 이제 다음 교섭부터는 사측의 제시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어느 때보다 충분한 질의응답이 진행된 만큼, 사측의 성의있는 첫 제시안을 기대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 사용 제한

사 : 회사가 50년, 100년 발전하려면 노사가 한마음으로 같이 가야 한다. 요즘 힘들지만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타협했으면 한다. 경제가 어떠니 하면 식상하다고 할텐데, 대전충북지부만이라도 다른 지부와 달리 차별화 했으면 한다. 학자금 같은 복지는 선진국처럼 국가가 책임지라는 요구를 하면 노사가 원만히 갈 수 있다. 동일직종 동일노동은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정하면 싸움이 없다. 어렵지만 그런 방향으로 부탁드린다. 그러면 모두 환영하고 박수칠일 될 것 같다.

노 :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회사 규모가 크든 작든 노동자들이 같은 임금 받고 대우받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기업이 하는 복지를 정부가 무상교육 실시하면 기업 지출도 상당히 줄어둘 수 있다. 그런데 갈 길이 너무 멀다. 뉴스를 보니, 경제 도약을 위해 노사 관계가 안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용자가 많이 양보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용자협의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가보니 못들어오게 막는다. 지부장이 간부 2명이랑 지회 사무실 둘러보고 천막농성장 방문해서 현안문제 중재하겠다고 해도 막는다. 여기 있는 사용자들은 괜찮는데 많은 사용자가 그런다. 특히 대공장, 재벌들이 더 그렇다. 사내유보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풀지 않는다. 원하청 불공정거래 자행하면서 작은 공장들 노조할 권리를 방해한다. 재벌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파업, 총력투쟁, 확산투쟁들도 하는 것이다. 지지해달라고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방해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준비돼 있다.

사 : 작은 업체 배려하면 좋겠다.

노 : 대정부 투쟁 나갈 때 시간할애 해주면 정부 복지 더 쟁취할 수 있게 하겠다. 우리가 노사공동위에서 그

런 내용도 다룰거다. 사용자도 그런 의제 올려서 논의 하자. 정부 세금제도 개혁, 복지제도 개선하려고 싸우고 있으니 많은 지지 부탁드린다.

사 : 오늘 식당개선 요구안 질문하겠다. 먹거리 문제는 노사가 상식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가운 의제 중 하나다. GMO 표시제 준수한 식품을 사용하고, GMO 식품은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한 의미가 뭔가?

노 : 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는 식품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식당 도급업체가 때로는 정부 지침을 벗어나는 걸 사용하는게 있어서 규제하자는 것이다.

사 : 표시제를 준수한 식재료는 사용해도 되는건가?

노 : 그렇다. GMO 식품은 전체적으로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아직 드러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사 : 정부 규제가 돼서 시장에서 그렇게 형성돼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GMO 식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다. 정부 규제 등과 같이 풀어야 하는 문제다. 일터괴롭힘 금지 요구에 보면 '정서적'이라는 말이 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익숙한데, 정서적이라는 건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노 : 현행법에도 '정서적'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정신적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요구는 조합원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서 노조도 부담이다. 조합도 생산 위주에서 점점 사무, 영업, 판매로 조합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영업쪽에서 문제가 많고 원하청 관계에서 가해지는 괴롭힘은 상당히 크다. 모든 노동자의 인권 문제라 생각하고 노사가 전향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차기 교섭에서는 제시안 준비해왔으면 좋겠다.